

거짓뿌리

똑, 똑, 똑,
문 좀 열어주세요
하룻밤 자고 갑시다.
맘은 깊고 날은 추운데
거, 누굴까?
문 열어주고 보니
검둥이 꼬리가
거짓뿌리 한 걸.

× ×

꼬끼요 꼬끼요
닭알 나았다
간난아! 어서 집어가거라.
간난이 뛰어가 보니
닭알은 무슨 닭알.
고놈의 앓닭이
대낮에 새빨간
거짓뿌리 한 걸.

『카톨릭 少年』 1937년 10월호

거짓부리

똑, 똑, 똑
문 좀 열어주세요
하룻밤 자고 갑시다
맘은 깊고 날은 추운데
거, 누굴까?
문 열어주고 보니
검둥이 꼬리가
거짓부리 한 걸.

× ×

꼬끼요 꼬끼요
닭알 낳았다
간난아! 어서 집어가거라
간난이 뛰어가 보니
닭알은 무슨 닭알
고놈의 암탉이
대낮에 새빨간
거짓부리 한 걸.